

2018년 제6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2018. 6. 20. (수) 15:00~17:0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 석: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등 20명
- ◆ 안 건: 자문 1건, 심의 1건

구분	자문(보고) 및 심의	발 표
자문	마곡지구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현성 연구원 민병직 큐레이터
심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의 시작' 사업 폐지의 건	김 백 곤

- ◆ 심의결과: 승인(1건) ※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의 시작' 사업 폐지의 건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성원이 되어 제6차 공공미술위원회를 시작함

자문(보고) 1. 마곡지구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자문

000 : 관련 부서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람

000 : 2개 파트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음. 2017년 12월 19일 1차 자문 받았음. SH와 협의를 통해 5월 12일 부시장님 보고까지 마쳤음. 1차 공공미술위원회 자문내용 중 전문가 영입에 대한 건이 있어서 연구용역에 큐레이터를 참여시켜 추진함. SNS 소통 외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가하였음. 시범 핵심사업에 대한 가치부여와 관련하여서는 합의과정을 끌어내는 과정을 3개월 추진했음. 마곡 공공미술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공공미술테마를 통합 추진을 위해 발산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견이 있어 사회적 도출 프로세스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업 목적을 변경하였음

스마트나 친환경, 장소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마곡지구(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함께 고려하여 마곡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보완하여 Seoul Magok ART in Life로 구성하였음. 마곡 공공미술을 주제로 정하지 않고 마곡만의 특징을 이니셜을 따서 정했음. 마스터플랜은 가이드라인과 요소를 가지고 있음. 3대전략 15개의 실천방안을 실천함

마곡형 공공미술 플랫폼, 마곡형 공공미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의 3가지 전략으로 프로그램, 큐레이션, 매니지먼트로 구성하였음

첫째 공공미술 플랫폼은 가변성이 많고 임시적인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닌 사용자와 자연현상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지향성을 지님

둘째 장소성을 띄는 플랫폼을 지향함, 오브제가 아닌 시간성과 장소성이 가미되어 장소 플랫폼이라 명칭함. 추후 작품의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함. 브랜드 상징형 플랫폼은 브랜드를 마곡 공공미술 가치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두려고 함

네 번째 독립적인 측면에서 사회 기부를 수행하는 가치형으로 사회기부라든지,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공익 플랫폼을 설정함

또한 일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참여 페이빙, 벤치 등 일상 영역에 적용하였음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마곡지구 공공미술 큐레이터 제도를 적용하여, 계획, 관리를 전문적으로 통합적 실행, 관리를 추진하고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공익적 매개체를 추진.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 측면 접근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의 공공미술단을 두고 있음

세 번째, 매니지먼트는 대상지를 권역별로 구성을 하여 관리, 계획하에 둬.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특별 지역으로 통합 미술권역을 마곡 광장안에 기반을 넣었음. 시범사업 단계별 설정으로 민간 공공미술 공모대행제도도 담았음

전체적으로 민간영역에는 공공미술이 설치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반원형으로 구성하였음. 1단계는 발산역 주변, 2단계 마곡광장, 3단계 상업단지과 일반지역 지구내 영역으로 나뉘었음

참여부분에서는 시민해설사, 시민디자이너, 지역 대학과 대학생 등 콜라보레이션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시범사업은 큐레이터가 설명

000 :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안으로 연차별 안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임. 대외적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사업명을 em밸리로 정했음.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확장하고자 함. 여러 가지 맥락에서 시범사업 시 효용성과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사업을 발산역 광장으로 추진함. 신도시 마곡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장소성을 대외적으로 알릴수 있는 계획안임. 연차별 계획을 두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발산역 광장과 문화공원 2호, 3호와 SH에서 선정한 녹지 라인을 따라 계획함. 1차로 발산역 광장의 녹지회로를 따라 서 일상에 스며드는 사업으로 계획함. 발산역 광장은 신도시 마곡이 들어서는 위치라 구도시와 접점이 되는 지역이며, 장소적 산만함이 있음. 광장이 가진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이미지를 변화할 수 있는 공공미술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소통 등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함.

발산역 광장 자체가 도심속에 번잡한 부분이 있어 광장 시설물을 정리하며 조정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면 마곡이 관문이면서 도입지를 상징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

문화공원을 7개 조성할 계획이며, 2호와 3호의 공원이 장소성을 알릴 수 있는 장소라 시범사업은 두 곳으로 추진함.

시민들의 만남을 위해 조성되는 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임. 공원들의 역할은 단지내 연구원들의 쉼과 소통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는데, 미술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함.

이 공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역의 연대감과 지역주민들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마곡의 장소성(녹지회랑, 공원)을 살린 다거나, 지역 특성(첨단연구단지, 바이오의학 사업지구 등)에 맞게 지역의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개념. 세련된 마곡의 이미지에 맞게 공공미술을 추진함. 또한 지역에 입주한 생산품을 활용하여 마곡의 장소성을 알려주는 작품을 하거나 녹지 개념을 드러내는 작품을 계획함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미술다운 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입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으로 제시함

이어서 한가지 안건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소녀상 건립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고 강서구 요청으로 소녀상 설치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자 3개의 대상지가 있어 자문드림

첫째 마곡지구 도입부인 발산역 광장임. 둘째, 가양동 270-3. 마곡지구 안에서도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된 곳임 셋째, 우수지 내 어울림마당. 공간적 성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체육시설이 조성될 예정임. 세 개의 후보지 중 어느 곳에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000 : 추진일정과 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는 윤곽이 나왔는지

000 :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고, 자문과 보고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도 유동적인 것임

000 : 10월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이 용역서는 향후 마곡지구 공공 미술 실현 가이드라인 성격과 SH에서 투자 관리하는 사항으로 SH가 가능한 공공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하는데 향후 2차, 3차를 추진하다보면 SH 측에서는 인지가 없을 수 있고 축소 추진 우려가 있음

000 : 투자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마곡 산업단지에 대한 TF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성되어 운영될 계획이 있음. 향후 비용 및 관리문제는 준공이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계속할 것임

- 000 : SH는 관리 위주 이므로 시범사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SH가 제안한 용역이 서울시의 추진방향과 다를 수 있음. 애매하게 1단계 2단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 단계만 추진하고 빠지고, 서울시와 공유가 안되고 페이퍼로 끝날 수 있다고 보여짐
- 000 : 초기안과는 많이 발전된 계획안이어서 고생을 많이 한걸로 보여짐. 마곡지구에 도시나 지역개발과 공공미술이 도시계획과 맞물려 추진한다는 SH공사의 계획이 보이지 않음. 구체적인 장소나 지역에 맞물려서 어떤 투자, 장소 등이 없어 보임
- 000 : 12년전에 마곡지구 발산역과 공항대로의 오피스텔을 10평~15 평의 작은 공간으로 건설함. 그 장소성에 공공미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오피스텔 주변 현장을 확인 해야 공공미술에 대한 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000 : 당초 발산역 광장에 작품을 하나 세우는데 공모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위원회는 전체 계획이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 하라는 자문을 드렸고, 공모절차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계획할 업체(학회)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서 나온 계획안임
- 000 : 발산역을 매일 보고 사는 사람으로 현장 주변의 이해가 무엇 보다 필요함
- 000 : 마곡관련해서는 도시 분야 수립하는데 신중진 교수님이 참여 하셨고, 조경진 교수님은 서울식물원 일을 추진하고 계셔서 상황은 이해하고 있음. 회의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SH공사의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바람

000 : 가능한 시범사업의 범위를 단계(1-3단계)를 나누지 말고 초반에 시범사업을 많이 해서 SH가 많은 투자를 해서 공공미술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음

000 : 이 사업과 비교를 하자면 상암 DMC는 전체적인 공공미술에 대한 방향 프레임은 짜고 그에 맞춰 작품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음. 그렇게 되는 것이 마곡도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곡은 건축물미술작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건축물미술작품은 개별상황에 맞게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곡 마스터플랜의 컨텍스트와는 상관없이 개별 환경에 맞는 작품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미작 위원회에 사전에 마곡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음

SH 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맥락안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함. 서울식물원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좋은 인프라가 생기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미술작품들이 군데 군데 숫자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이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공공적 가치로서의 미술을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함

개별 건물주가 할 수 없는 전체 그림 안에서의 꼭 해야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윤곽들은 어느 정도 제시되었는데, 소녀상의 위치선정은 공미위에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복잡한 과정에서 이 일을 하게된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기 바람

000 : 처음에 20억여원의 조형물 하나, 작품 하나를 설치하려고

했던걸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제안한 이유는 마곡이 새로운 사업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도시 미술, 공공미술적 개념의 가이드 라인을 주고, 건축물, 건축물 미작에 맞게 도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했음

마스터플랜이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파생계획에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줄수 있고, 관리가 나올 수 있고, 시범 사업 이후 5~10년이후 공공미술사업을 누군가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침으로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기준, 과업내용서의 지침 등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해야 함

또 하나는 국공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개인 주변 건축물 미작에 대한 제안들이 나오지 않았음. 마곡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다루더라도 공공미술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계획 된다면, 민간, 공공 부문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면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새로 공원을 조성할 때 작품을 두는 것도 지침을 주기를 요구한 것임. 전체 마스터플랜은 계획되어 있는데, 시범 사업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함. 코오롱 미술관이라고 안이 있는데, 일본 나카도리의 미쓰비시처럼 위탁 운영하던지 5-10년 후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000 : 큐레이터의 역할은 언제까지인지

000 : 10월까지만 추진함

000 : 시범 사업에도 안 들어가는지

000 :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고, 큰 틀만 정해주고 시범 사업은 다른 분들이 심사하고 공모하고 진행하는지

000 : 시 행정의 요구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동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긴 하지만 마곡 녹지회랑을 통해 지역에 스며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마곡만의 차별화된 공공미술을 알리고 싶은 계획임

시간이 걸리는 계획만큼 복합적으로 형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마곡은 새로운 단위로 새로운 형식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음

000 : 조금 더 낮게하겠다가 아니고, 새롭게 추진해야 함.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공모방법, 모집요강 디테일, 심사기준까지 나와줘야 다른분이 향후 추진할 수 있음. 임의로 작가를 지정할 수 없기에 마스터플랜과는 무관한 작품이 설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함

000 : 민병직 큐레이터선생님께 부탁드리기 보다는 서남권사업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마스터플랜이 끝나고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향후 1년 이후에도 MP나 총감독을 지정하듯 계속 추진한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작성해서 제안하면 좋겠음. 시와 서남권사업단에서 진행하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음. SH공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음

000 : 용역이 10월까지이니까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와줘야함. 마스터

플랜도 피상적이기 때문에 SH공사의 취지까지 추진함. 큐레이터 제도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시범사업 끝날 때까지라도 보완되어야 함. SH공사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SH공사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가변적 비용 주체 대상 제시도 필요함

000 :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품이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는지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인지

000 : 부지에 대한 소유는 서울시 것이라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함. DMC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처음부터 개입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진행해서 완성되고 옥외광고판, 전광판 등 애초 설계단계 그대로 실현됨. 공공미술이라도 똑같은 작품 여기저기, 전체적인 맥락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주면 좋겠음.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부터 위원회가 개입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계속 개입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음

000 : 향후 심의 시 시의 의도에 맞지 않게 한다면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한데, 10월까지 큐레이터의 안을 가지고 별도 추진한다면 따로 진행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000 : 서남권 관련하여 심의기능이 있기에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 조례상 심의 대상임. 마스터플랜상에 시유지에 설치되는 작품이 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000 : 추가 의견이 있는지

- 000 : 과업의 개요 중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000 :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추진하려고 함. 기업관련 분들과 서울시민에 대해 의견수렴하려고 함. 전수조사는 일반 주거지쪽으로 했지만, 서울시민 전체에 의견을 듣고자 함
- 000 : 서울마곡공공미술 사회적 공익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새로운 역할 정립이 어떤 역할인지
- 000 : 관문도시로서의 정체성, 산업혁신기지 가치성, 녹색도시로서의 환경성의 정체성을 공공미술이 기능을 수행하기 원함. 사회성, 문화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미술이 2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익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계획이었음
- 000 : 실현 가능성 방법을 찾으면 좋겠음. 공공미술 서비스디자인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 000 : 공공디자인단 3천명이 있는데, 발굴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임. 과정 중심에 구현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계획임
- 000 : 구체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 000 : TF를 중심으로 큐레이터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임
- 000 : 전체적인 공공미술 포함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그런 단위체가 필요함

- 000 : ‘서울은 미술관’ 구현이라는 것을 마곡에 구현하겠다는 계획인데 SH공사에서 예산에 맞게 실현을 해야 함. 공공미술 둘레길, 시민해설사 구성해야 함.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인지
- 000 : 마스터플랜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이 중요함
- 000 : 오늘 나온 자문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인 실현안 필요, 큐레이터의 지속성 필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보완 바람.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은 이 형태로 추진하는지
- 000 : 어떤 경위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안이 올라왔는지
- 000 :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강서구에 요청하여 강서구에서 SH에 요청한 사항임
- 000 : SH에서 수용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형태로서는 실제로 저곳에 설치할 수 가 없을 것 같음
- 000 : 의견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추가 의견 없음
- 000 : 소녀상은 공공미술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 000 : 소녀상도 심의 대상임
- 000 : SH측에서 소녀상 건립에 대한 내용이 마스터플랜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의견부터 정리해야 함
- 000 : 잘 정리해주시기 바람